





“혹시 한국 분이세요?”. 잠시 한국에 다녀왔더니 이곳에서 잘쓰던 유심카드가 먹통이다. 새벽에 도착한 공항에 앉아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다 갑자기 모든게 다 귀찮아졌다. 배가 불룩한 검은 백팩을 배고 벤치에 드러누웠다. 벤치라고 하기엔 여러개의 작은 의자가 이어진 모양이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리 저리 몸을 돌려 누워봐도 딱딱한 벤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동안 뒤척이다 흡연실도 없는 이 공항에 오래 있을 수는 없을것 같아 카운터로 보이는 곳에 가서 콜택시를 부탁했다. 20분쯤 후 택시가 도착했다. 먼지로 뒤덮인 검은색 도요타 였다. 내가 급할것이 뭐 있나 싶어 담배를 한대 꺼내 물었다. 공항 앞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두워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몇몇의 검은 무리들을 보며 담배 한대를 천천히 다 피웠다. 쓰레기통에 담배를 비벼 끄고 택시로 다가가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기사에게 성의없는 목례를 하고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그리고 조수석의 문을 열었을때 내 뒤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내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죄송한데요. 혹시 한국 분 이세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잠시 한국에 돌아가 빠듯한 일정을 해치우고 서울의 속도에 허덕거리다 지금 막 돌아왔는데 공항에서부터 또 한국인과 만나게 되는 상황은 나에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리 작지 않은 키의 그녀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설명했다. 입국 수속이 늦어졌고 호텔 픽업을 예약했지만 기사는 이미 떠나버린것 같다고 했다. 혼자 택시를 타는것이 무서우니 아르바트 거리까지 함께 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알기에 우선 말을 삼켰다. 게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는 대부분 아르바트 거리에 몰려있으니 아무 한국인이나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해보는것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중간에 내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열던 조수석 문을 다시 닫고 물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택시기사는 재빨리 “텐싸우전. 텐싸우전.”을 외치며 뒷문을 열었다. 아르바트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듯이 왜 빨리 안 타냐는 표정으로 거친 손짓을 해대고 있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길을 한참 달렸다. 습하고 더운 바람이 조금 열어 둔 창문 틈으로 괴상한 소음을 내며 들어오고 있었지만 40도를 넘나드는 서울의 더위에 비하면 차라리

시원하다고 하는것이 더 적당한 날씨였다. “고맙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가는 길인데요. 뭐. 괜찮아요.” 그리고는 택시가 출발하기 전 나에게 빠르게 말했던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 마지막에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기사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택시에 가방을 실었다가 다시 꺼내 무작정 나에게 왔다는 말을 덧붙혔다. “여행 오신거예요?” “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짤막한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전 미현이라고 해요. 대구에서 왔어요. 너무 급하게 여행 일정을 잡느라 썩 숙소를 못구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느라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이렇게 됐네요.” 말에서 사투리는 잘 느껴지지 않았다. 대구와 부산에서 이곳으로 여행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중 한사람인듯보였다. “그런데 어찌다 여기를 선택하셨어요?” 한달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보며 늘 같은 의문을 품고 있던 차였다. “블라디보스톡이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딱히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었다. 잠시 뒷쪽으로 틀었던 몸을 다시 앞으로 돌려 앉아 아무 쓸모가 없어진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며 한참을 더 달렸다. “저는 곧 내려요. 제가 지금 러시아 유심이 안돼요. 제 한국 번호를 드릴테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숙소에 가서 한국 유심으로 갈아 끼울게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여행 잘 하시구요.”

2주만에 돌아온 숙소는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다. 짐을

방 한 구석에 던져두고 침대에 털썩 앉았다. 싸구려 스프링이 튕겨오르며 약간의 찌걱임을 만들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머니 안의 담배를 꺼내다 택시에서 쓸데없이 부린 오지랴이 떠올랐다. 꺼내 들었던 담배를 침대에 놓아두고 엎드려 침대 옆 스탠드를 쬐다. 지갑에 넣어둔 한국 유심카드를 꺼내 스탠드 아래에 두고 얼마전 독립영화제에서 선물로 받았다가 못생겨서 한번도 달아보지 않은 배지를 가방에서 꺼내 유심카드를 교체하는 구멍에 핀을 찔러 넣었다. 카드를 교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곳은 여행 유의구역이라는 외교부의 안내문자가 가장 처음 도착했다.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 하라는 문자가 연이어 도착했다. 여기 지금 관광 온 한국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공무원들의 면피용 행정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KT에서 온 로밍 안내 문자는 보지도 않고 지워버린 후 비행 중에 한국에서 온 문자 몇 건을 확인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지만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 온 서울의 일은 아직도 진행중으로 보였다.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니 두건의 메시지가 이미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미현입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하다가 굳이 뭐 그럴것까지 있나 싶어서 한국 유심카드를 바로 다시 빼버리고 작동하지 않는 러시아 유심카드를 끼워 넣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창문 앞에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나서야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왔음이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내일부터는 또 어디를 가볼까 잠시 생각하다가 지난 한달 내내 그랬듯이 그저 혁명광장에 나가 오고가는 사람들이나 구경해야겠다고 계획도 아닌 계획을 세우고

씻는둥 마는둥 한 채 침대에 누웠다. 여전히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와 윗집 마루바닥의 빼그덕 소리가 조금은 거슬렸지만 다행이도 금새 잠이 쏟아져왔다.

2주만에 다시 온 혁명광장의 풍경은 딱히 변한것이 없었다. 내가 늘 앉아 있던 벤치는 조금 더 더러워 졌을뿐 내가 떠나기 이전 그것과 달라보이지 않았다. 한국 관광객들이 셀카봉을 들고 한차례 광장을 쏘고 지나가면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한차례 광장을 쏘고 지나갔다. 그 관광객들을 따라 비둘기 떼가 이리저리 날아 다닐뿐 여전히 무엇하나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나마 한켠 기념품 가게에서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과 영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 순으로 나오는 호객 메시지가 이 무료함을 조금 덜어주는것이 다행이었다. 우선 핸드폰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급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대 꺼내 물고 한국 유심카드를 다시 꼽았다. 몇개의 메시지 알람이 왔다. 이 지역 미술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내 유심카드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전 금액이 다 떨어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고 충전을 했으니 다시 사용해보라는 메시지가 왔다. 아마 한국에서도 한국 유심카드를 꼽기가 두려워 러시아 유심카드를 꼽고 돌아다녀서 그렇지 않을까 혼자 의심하며 유심 카드를 바꿔 끼웠다. Beeline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환영 메시지가 몇개 들어왔다. 그리고 몇개의 부재중 메시지 중에는 유미현씨의 것도 하나 있었다. “어제는 너무 고마웠어요. 괜찮으시면 오늘 제가 식사를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그럴것까지 있을까 싶었지만 이 무료한 광장

풍경보다는 그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답장이 늦어
미안하다는 메세지와 함께 저녁 6시에 굼백화점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카메라를 한쪽 어깨에 메고 광장을 몇바퀴 빙빙 돌아보다
샌드위치를 하나 사들고 다시 구석 벤치에 앉았다. 관광객들이
던져 놓은 식빵 가루를 쪼아먹는 비둘기들을 구경하며 마른
샌드위치를 함께 뜯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내 앞으로 몰려왔고 가이드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작은
깃발을 들고 이곳이 러시아 혁명을 기리는 혁명광장이라고
소개하며 이 광장에서 시작된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동포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했고
5분동안 기념사진을 찍고 건너편 유리로 장식된 굼 백화점
앞에서 모이라는 공지를 남긴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
남자가 왜 중앙백화점을 굼백화점이라고 알려준것인지 문득
궁금해졌지만 이곳까지 와서 애써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다.
어차피 이 광장은 쇼핑몰로 통하는 넓은 통로일 뿐이니 저곳이
중앙백화점이든 굼백화점이든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일사분란하게 광장의 중앙으로 이동해 일렬로 서서
단체사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단체티셔츠를
맞춰 입은 한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또 내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다 먹은 샌드위치 봉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넣을때
쫘 혁명과 강제이주라는 단어가 몇번 들렸고 이내 사람들은
삼삼오오 기념품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미현씨에게 다시 메세지가 왔다. “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 먼저 들어와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딱히 할

일은 없었지만 또 딱히 일찍 가고 싶지는 않아서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인적이 조금 드문 교회 공사장쪽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그 벤치 옆에서 3주전쯤 한 노파에게 받은 신문을 가방에서 다시
꺼냈다. 붉은 공산당 깃발 주변에 알수 없는 말들이 쓰인 피켓을
든 노인들 몇몇이 모여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몇가지 신문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나마 가장 젊어 보이는 남성 앞에 가서 잔뜩
미소를 머금고 손짓 발짓으로 이것이 무슨 신문인지 알아내 보려
했지만 의사소통이 될리는 만무했다. 그 중 베레모를 단정하게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나눠주던 백발의 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무표정하게 무어라 무어라 질문으로 보이는
말들을 던졌다. 한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
까레이?”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무심결에 “까레이.” 라고 답했고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조금 펴서 내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신문 한장을 건넸다. 나는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기도 했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어서 그저 스파시바를 연신 내뿔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사람들에게 신문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접어 가방에 넣어 두었던 신문을 2주만에
꺼내 구글번역기로 번역을 시도해봤다. 한글로의 번역은 애초에
포기하는것이 나아보였고 그나마 영어로의 번역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번역기의 카메라를 이리대고 저리대며 알만한
단어들이 나올때까지 카메라를 옮겨다녔다. 몇분의 시도 끝에
한 문장의 조합이 완성됐다. “WORKERS OF ALL LANDS,
UNITE!”.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시간에 맞춰 도착한 카페에는 이미 한국인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 한 구석에 유미현씨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있었다.

먼저 나를 알아보고 유미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인사를 건넸다. 사실 나는 어둠 속의 실루엣과 어두운 택시 안에서 잠깐 본 얼굴이 닮았기 때문에 유미현씨의 얼굴을 처음 본것이나 다름없었다. “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 하며 흘깃 얼굴을 확인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유미현씨는 내가 앉는 걸 확인하고서야 자리에 앉으며 연신 감사인사를 반복했다. 사실 내가 뭘 그리 고마운 짓을 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 반복되는 감사인사를 멈추려면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들어가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여행은 잘 하셨어요?” 나는 유미현씨 앞에 펼쳐져있는 블라디보스톡 여행 책자를 보며 물었다. “아침부터 하루종일 해양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뜻밖의 대답에 이곳까지 와서 왜 하루종일 같은 곳에 앉아있었냐고 묻고싶었지만 하루종일 광장 벤치에 앉아 있다 온 내가 할 질문은 아닌것 같았다. “배고프시죠? 밥먹으러 갈까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곳인데 괜찮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이 옆에 있대요. 괜찮으세요?” 유미현씨가 펼쳐진 가이드북을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네. 드시고 싶으거 드세요. 전 이곳에서 먹을날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유미현씨와 헤어지고 숙소로 다시 돌아오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다. 식사를 마치고 BAR에서 간단히 맥주 몇 잔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있었다.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어중간하게 술을 마셔서 그런지 잠이 오질 않았다. 한국에 나가기 전 냉장고에 넣어둔 보드카가 떠올랐다. 아침에 차를 마시던 컵을 물에 대충 헹구고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보드카와 말라 비틀어진 치즈를 꺼내 책상에 다시 앉았다. 차가운 러시아인 스탠다드 한모금을 꿀꺽 삼키고 담배를 한대 물었다. 유미현씨가 BAR에서 해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광주에서 태어난 자기가 어떻게 대구의 공무원이 됐는지. 대구에서 부동산을 하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광주에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붉어진 얼굴을 하고 무표정하게 내뱉는 그녀의 말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 들고 유미현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개선문 가실때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밥을 먹으며 해양공원 말고 가보고 싶은곳이 없냐고 물었을때 유미현씨가 개선문을 지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단데 여기까지 왔는데 거긴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였다. 그리 오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저야 좋죠. 내일 두시에 혁명광장에서 만나요.”

맥주와 보드카를 섞어 마셔서인지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인지 숙취가 남았다. 김빠진 콜라를 냉장고에서 꺼내 별걱별걱 마시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유미현씨에게 메시지가 하나 더 와있었다. “저 늦잠자고 에게르셴드 등대에 가보려고해요. 다녀오면 좀 늦을 수도 있겠어요. 세시에 광장에서 만나요.” 한숨 더 잘까 하다가 빗소리가 시끄러워 잠이 올것 같지는 않아 TV를 켰다. 2주전까지 밤마다 매일 보던 256번 채널이 나왔다. 신기하게도 이곳 지역 케이블 방송 256번은 24시간 혁명광장을 CCTV로 비춰주는 채널이다. 멍하니 광장을 보고 있으면 매일 같은 시간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보이고 밤늦게 장미 꽃다발을 들고 벤치에 앉아 키스하는 연인들도 보인다. 이른 새벽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노동자들도 보이고

아침마다 광장 한켠 작은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할머니도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전파 낭비 인가 싶다가도 숙소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256번 채널을 켜고 멍하니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다. 오늘은 광장에 장이 서는 날이다. 샤워를 대충 하고 우산을 챙겨 광장으로 가는 59번 버스를 탔다. 이곳의 버스는 대부분 오래된 한국산이다. 한국 대부분의 버스들이 저공해 버스로 바뀌고 쓰다 남은 공해 덩어리 버스를 죄다 이곳에 팔아 먹었다. 알팍한 죄책감과 매연을 30분쯤 견디다 23루블을 내고 혁명광장 옆 연해주 정부청사역에서 내렸다.

니콜라이 개선문에 도착할때쯤 내가 물었다. “어떤 소원을 빌지 결정은 했어요?” 유미현씨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성큼성큼 개선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시 개선문을 통과해 내쪽으로 오며 말했다. “소원이란 말은 너무 커서 잘 모르겠어요. 저 공무원 6년차예요. 그런거 잊고 산지 오래네요.” 유미현씨는 웃을때 마다 입꼬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도 그랬다. “등대도 별거 없던데요? 어제 술 사셨으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괜찮으세요?” 유미현씨가 물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소원성취는 못하더라도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기념 사진이라도 찍어 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어렸을때는 모든 사진에 제가 나오는게 좋았는데 이젠 안 찍어요. 제가 찍어드려요?” 나는 개선문을 등지고 돌아서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가죠.” 유미현씨가 들고 다니던 가이드북이 소개해준 샬슬릭집으로 갔지만 이미 한국인들로 가득 차있었고 조금 기다려 볼 생각도 했지만 예약이 없이는 앉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길거리에서 가이드북을

뒤적거리던 유미현씨는 뭔가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갈까요?” 라고 물었다. “그게 낫겠어요.” 매연으로 가득한 길을 걸어 해양공원 근처 BAR에 자리를 잡고 바텐더가 추천해 준 칵테일을 한잔씩 받아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기 일몰이 참 좋은데 어제도 흐리고 오늘도 비가와서 아쉽네요.” 유미현씨는 짧게 대답했다. “아쉬워야 기억에 남죠.”

해질 때가 되어서는 이미 둘 다 취기가 올라와있었다. 어제부터 머리에 맴돌던 유미현씨의 아버지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하셨다던 식당은 이제 사라진거예요?” “사라졌겠죠. 그게 언젠데요. 전 기억은 잘 안나지만 88년 서울 올림픽때 우린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만두신건 훨씬 전일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에 광주항쟁이 터졌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대요. 정확히는 광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부터였겠죠. 그때가 제가 태어난지 두달정도밖에 안됐을때라 할머니가 아버지 데모 나가려는걸 엄청 말리셨나봐요. 나가려면 저년 죽이고 나가라고. 죄책감 같은거였겠죠? 그래도 한동안 가게를 더 하신걸로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를 할머니 댁에 맞기고나서부터는 할머니가 아버지 얘기는 잘 안해주셨어요.” 오른턱을 괴고 한동안 검은 바다를 바라보던 유미현씨가 갑자기 메뉴판을 뒤적거리더니 다시 덮고는 “우리 영원의 불꽃 가볼래요?” 라고 물었다. “그거 아까 갔던 개선문 옆에 있는건데 지금 다시 걸어갈 수 있겠어요?” 2년전 짧게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렀을때 가보고 실망하기도 했고 왔던 길을 이 밤에 다시

걸어 가겠다는 말에 조금은 귀찮기도 해서 말려볼 요량으로 내가 다시 물었다. “러시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원한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70년이 넘게 한번도 불꽃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러다 꺼지면 어떡하려고.” 또다시 유미현씨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일어나자마자 택시 앱을 켜보았다. 어제 숙소에 오는 택시를 부른시간이 3시 25분으로 나와있는걸 보니 4시 넘어 숙소에 들어왔을테고 그러면 3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몸이 개운했다. 그렇게 술이 취했는데도 들어와서 TV는 켜나보다. 256번 채널을 통해 안개가득한 혁명광장의 모습이 보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뚜껑도 닫지 않은채 넣어둔 사과 주스가 남아있었다. 주스를 컵에 한잔 따르고 가방에 있던 담배를 꺼내 책상에 앉았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제 BAR에서 유미현씨가 보내준 뉴스 캡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유미현씨의 아버지는 3년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날도 광주에 산악회 모임을 가시던 길이었고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었다고 했다. 유미현씨가 보내준 뉴스캡처에는 비탈길로 떨어져 반파된 고속버스 한대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나중에 안거지만 아버지가 산악회 모임을 하면서 운동권 책들을 많이 읽으셨대요. 엄마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언젠가부터 밤에 술을 안마시고 책을 보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뭘 그리 보냐고 물으면 늘 세상 공부 한다고 그러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책상 서랍에서 달력으로 싸놓은 운동권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대네요.” 유미현씨가 맥주잔을 만지작 거리며 이야기 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당시 운동권 책이라면 짐작가는 제목이 몇개 있었지만 굳이 아는척은 하지 않았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기억을 더듬어 대화들을 다시 짜맞추려다보니 두통이 조금씩 시작됐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넣고 서울에서 가져온 반쯤 찌그러진 컵라면 하나를 뜯었다. 담배를 한대 필 동안 물은 끓기 시작했고 컵라면에 물을 잔뜩 부었다. 면보다는 국물이 필요했다.

기억이 끊기기 시작한 지점이 유미현씨 입에서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나올때 쯤이었던것 같다. 나는 술에 취해 “스탈린이요?” 라는 질문을 몇번이나 반복했고 유미현씨는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할머니한테 오빠가 한 분 계셨대요. 할머니 어릴적에 오빠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캄차카에 배를 타러 가셨는데 그 해 11월에 마지막 강제이주 기차를 타셨나봐요. 할머니는 늘 오라비가 당신 때문에 그 기차를 탔다고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할머니한테 그건 다 스탈린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정을 부리셨나봐요. 엄마는 그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 이야기 이후에는 자신은 원래 술을 잘마시지만 회식이 너무 싫어서 술을 전혀 못먹는 사람으로 산다는 등 돌아가면 인사이드가 있을텐데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것 같다는 등 시답잖은 이야기들을 하다 헤어진 기억이 어렴풋이 남았다. 그나마 분명하게 기억나는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밥짓는 봉사를 하셨다는 이야기 정도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BAR의

TV에는 베를린 장벽 앞 광장에서 공연하는 데이빗 보위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라면 국물을 몇모금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남은 라면을 다 버렸다. 두통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 결국 진통제를 한알 삼키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동안 광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혁명광장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다. 유미현씨의 블라디보스톡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 대구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새벽 3시 40분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다 그러면 호텔에 짐을 맡기고 새벽 1시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술김에 약속을 해버렸다.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유미현씨에게 메세지가 왔다. “저는 좀 일찍 나와서 광장에 앉아있어요. 천천히 오세요. 여긴 러시아니까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였지만 뭔가 쉽게 납득이 가는 이유였다. 촌스러운 인테리어의 러시아 전통 음식점에서 샬리앙카와 샤슬릭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광장에 잠시 앉아서 나는 밀키스를 유미현씨는 탄산수를 마시며 관광객들을 구경했다. “근데 왜 돈 잘 벌던 영어 강사를 때려치우고 하필이면 공무원이 될 생각을 했어요?” 다 마신 밀키스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 놓으며 내가 물었다. “영어 강사도 한 철이에요. 그것도 다 어리고 이쁠때 할 수 있는거예요. 나이들면 못해요. 저 그 전에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도 잠깐 했어요. 어느날 이사장이 부르더니 이 학교랑 잘 맞는것 같다며 정식 교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학교에 1억을 기부하래요. 그러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원하셨어요. 제가 공무원 되는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 유미현씨는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독수리 전망대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비가 오네요. 전망대 빨리 가야겠는데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 했다. “안개가 이렇게 많은데 가면 뭐가 보일까요?” 유미현씨가 따라 일어서며 물었다. “우선 가보죠.” MAXIM 앱으로 택시를 불러 전망대로 출발했다. 가는길에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전망대에 도착할때쯤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 지금 내리는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요? 여기서 다시 택시잡기도 힘들텐데.” 유미현씨가 날 보며 물었다. “그래도 마지막 여행지인데. 우선 내려보죠.” 나는 택시요금 200 루블을 지갑에서 꺼내며 대답을 했다. 내 가방에 있던 조그만 우산을 펼쳐 들며 내가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 유미현씨가 우산 속으로 뛰어들며 택시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는 전망대에서는 금각교의 꼭대기 부분만 살짝 보일뿐 안개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잠시 쳐다보다 웃음이 터져버렸다. 아직 떠나지 않은 택시가 보였다. 택시 문을 열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기사님께 부탁을 하고 비를 쫓막 맞은 채로 유미현씨에게 말했다. “그래도 전망대 왔는데 사진이라도 찍고 가요.” 묘한 웃음을 짓던 유미현씨는 핸드폰을 들어 금각교를 보며 사진을 한장 찍었다. “독수리 전망대에서 이런 사진은 저밖에 안 찍었겠죠?” 내게 보여준 사진에는 온통 하얀 안개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가 안찍었으니 그렇겠네요.”

“아버지는 그렇게 술독에 빠져 지내시다가 산악회에 나가시면서 좀 나아지신것같아요. 88년도에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조그만 분식집을 차렸어요. 종로 뒷골목에 미도방이라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이름 이쁘지 않아요?. 장사도

잘됐었나봐요. 그때도 한달에 한번씩 광주는 꼭 가셨어요. 거기만 갔다 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녁을 먹던 유미현씨가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다가 돌아가셔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떨어져 살았고 서울 가서는 장사로 너무 바쁘셔서 저 잘때 나가시고 저 잘때 들어오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은 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상한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얘기하던 러시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밀린 월차 빨리 쓰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식사가 끝나갈때쯤 내가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왜 대구로 가신거예요?” 유미현씨는 고개를 숙인채 잠시 웃더니 “엄마 말로는 돈독이 올랐대요.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장사하다가 조그만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나봐요. 엄마가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처음 봤대요. 집을 몇 번 팔고 사고 하면서 그걸로 저 대학도 보내고. 그때부터 밤마다 부동산 책을 그렇게 보셨대요. 2007년인가 이제 대통령 바뀌면 대운하도 되고 돈도 풀릴거라고 경상도로 가야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서울집을 팔고 무작정 대구로 내려가서 집을 두 채나 샀어요. 저도 그때 학원일 그만두고 따라서 대구로 갔죠. 부동산에 취직해서 몇 달 일 하시더니 자격증 따서 부동산을 차리셨어요. 그때부터 주식도 하시고.” 비가 그치는듯 하더니 어느새 새빨간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와. 오늘 바다 엄청나네요. 미현씨 그래도 볼건 다 보고 가네요.” “그러게요. 이제 여기 다시 올 일은 없겠죠?”

“광장 덕후님. 혁명광장에서 이렇게 술먹고 놀아도 돼요?” 광장 벤치에 앉아 맥주를 홀짝 거리던 유미현씨가 나에게 물었다. “광장은 원래 그러라고 만드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혁명광장에 노숙인들이 있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옆 벤치에 앉아 있는 노숙인을 힐끗 보며 유미현씨에게 물었다. “사람사는데 다 똑같겠죠. 뭐.” 유미현씨는 새 맥주캔을 따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이 광장을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물었다. 유미현씨는 맥주를 한모금 크게 마시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맨날 하시던 소리를 또 하루종일 하셨겠죠. 끔찍해요. 광주는 미국놈들이 죽인거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려인 강제이주도, 소련이 망한것도 전부 스탈린때문이고 러시아 혁명은 위대하고 뭐 또 일장연설을 하셨겠죠. 그리고 산악회 분들 가져다 드릴 보드카나 잔뜩 사셨을거예요. 아니다 러시아 땅값 이야기를 하셨을려나.” 옆에 맥주 캔을 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번 와보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드네요. 저 할머니 집에서 살 때 할머니는 혼자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고려인 마을에서 봉사 하실때 니들은 복받은거라고 니들이 정신차리고 잘 살아야한다고 매번 그렇게 화를 내시며 연설을 하셨대요. 잔소리는 유전인가 봐요.”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이야기하던 유미현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은 좀 정리가 됐어요?” 내가 유미현씨를 보며 물었다. 유미현 씨가 몸을 조금 뒤로 젖혀 검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놀러 온거죠 뭐.” 어느새 마트에서 사온 맥주를 들어서 다 마셨다. 이미 열두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저기 위에 보고 손흔들어봐요. 누군가는 TV로

우리를 보고 있을거예요.” 내가 건너편 옥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기가 그 TV에 나온다는 카메라가 있는 곳이에요?”
유미현씨는 혁명광장 건너편 쇼핑몰 옥상을 향해 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근데 이 광장 좀 불쌍하지 않아요?” 흔들던 손을
털썩 내리며 유미현씨가 말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것같아요.” 유미현씨는 또 한참을 말없이 광장 이곳 저곳을
멍하니 바라봤다. “우리가 다시 만날날이 있을까요?” 가방을
둘러메며 유미현씨가 말했다. “글쎄요.” 내가 대답했다. “광장에
앉아있다 가끔 저 위 보고 손을 흔들어봐요. 혹시 내가 보고
있을지 알아요?” 유미현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말 없이 조금
긴 악수를 나누다 잡은 손을 놓으며 유미현씨에게 물었다. “이제
공항까지 혼자 갈 수 있겠어요?” 등에 맨 백팩의 두 어깨끈을 꼭
쥐며 유미현씨가 말했다. “여기 그렇게 위험한 곳 아니라면서요.”
유미현씨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Вы случайно не кореец?» Я ненадолго выезжал в Корею, и сим-карта, которой я пользовался прежде, перестала работать после мо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Мой рейс прибыл в аэропорт глубокой ночью, и я пытался придумать, как поступить, а потом мне это внезапно надоело. Я снял свой набитый под завязку рюкзак и улегся на скамью, или, скорее, на ряд, скрепленных вместе стульев. Я держал в руке телефон, но интернет не работал, и у меня оставалось не так много вариантов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Я ворочался на скамейке, но она была твердой и совсем не подходила для сна. Промучавшись немного, я решил, что в аэропорту, где нет даже зоны для курения, делать мне нечего. Подойдя к стойке, я попросил вызвать такси.

Машину подали где-то минут через 20. Это была пыльная черная «тойота». Торопиться было некуда, поэтому я достал сигарету. Я рассматривал группк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бывших тем же рейсом, хотя разглядеть их было трудно – даж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аэропортом было очень темно – и медленно выкурил свою сигарету. Потушив окурок о край мусорного бака, я подошел к такси, водитель которого, мужчина лет за пятьдесят, без лишних церемоний положил мои вещи в багажник. Когда я открывал переднюю пассажирскую дверь, сзади раздался голос: «Вы случайно не кореец?» Повернув голову, я увидел, что сзади, вплотную ко мне, кто-то стоит, и снова услышал тот же вопрос: «Извините, Вы случайно не кореец?»

Я коротко ответил: «Да». В Корее у меня был очень плотный график, я выбивался из сил в сеульском ритме, поэтому был не особенно рад встрече с другими корейцами ещё и здесь. Фонарь светил мне в глаза, и я не мог хорошо рассмотреть собеседника, однако заметил, что это была высокая девушка. Незнакомка наскоро начала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своей ситуации: она задержалась на па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и водитель из отеля,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ее забрать, уже, видимо, уехал. Она побоялась

садиться в такси одна и спросила, можно ли доехать со мной до Арбата. Я хотел было сказать, что тут нечего бояться, но подумал, что страх – вещь относительная, и сдержался. И мне не показалось странным, что она подошла к первому встречному – ведь почти все корейские туристы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в районе Арбата, поэтому можно спросить любого из них, и в этом не будет ничего подозрительного. Я спросил, прикрыв переднюю дверь: «Мне нужно выйти раньше, ничего? » Водитель, наблюдавший за это сценой, выкрикнул: «Тэн саузанд. Тэн саузанд» и открыл задние двери. Услышав слово «Арбат», он сразу понял,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смотрел на нас с упрёком из-за того, что мы так долго садимся, и поторопил резким жестом.

Мы долго ехали по трассе, освещенной редкими фонарями. В приоткрытое окно со странным звуком вривался влажный и теплый ветер, но после Сеула с его 40-градусной жарой это была приятная прохлада. «Спасибо. Мне было очень страшно», – сказала она после долгой паузы, продолжая прижимать к груди маленькую сумку. «Это же по пути. Мне не сложно», – сказал я, а она тем временем продолжила рассказ о своей ситуации,

начатый еще на парковке аэропорта. В конце истории она поведала, как уже было положила сумку в багажник другого такси, но водитель был какой-то пугающий, и она вновь достала сумку и без особых размышлений просто подошла ко мне. «Путешествуете?» «Да. Это мое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одиночку». Она продолжила короткий рассказ о себе. «Меня зовут Михён. Я из Тэгу. Планировала путешествие в спешке и не смогла найти дешевую гостиницу. Поэтому, чтобы сэкономить деньги, решила прилететь ночным рейсом, и вот что из этого вышло.» В ее речи я не слышал характерного для ее города акцента. Я знал, что в город приезжает множество туристов из Тэгу и Пусана, и,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она была одной из них. «Почему же вы решили приехать сюда?» В течение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яца я видел ст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городе, что поневоле задавал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Хотелось привести мысли в порядок». Это не было ответом на мой вопрос, но можно было догадаться, что она не хочет особ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Я выпрямился и начал копаться в телефоне, от которого, впрочем, не было никакого толка. «Мне скоро выходить. Моя местная сим-карта не работает, но я дам вам свой корейский номер, сообщите, если

понадобится помощь. Я подключусь к корейской сети, когда доеду. И кстати, это не такое уж опасное место. Хорош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Я вернулся в комнату спустя две недели отсутствия, и в ней было по-прежнему темно и влажно. Я кинул вещи в угол и плюхнулся на кровать. Дешевые пружины слегка скрипнули. Прислонившись к стене, я достал из кармана сигареты, и на память пришли бесполезные расспросы, которые я позволил себе в такси. Положив пачку сигарет на кровать, я включил стоявший рядом светильник, достал значок, полученный в подарок на одном из независимых кинофестивалей – он был некрасивым, и я ни разу его не надевал – и его иголкой открыл слот для сим-карты в телефон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рейская сим-карта была вставлена, первой пришл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мс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общающая, что я нахожусь в зоне, где нужно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 Мне рекомендовали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мест больш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Я подумал, сколько же, по их мнению, сюда приезжает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раз приходят даже сообщения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но эти госслужащие чего только не сделают,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лицо, поэтому просто

пролистал. Смс от своего провайдера о роуминге я удалил, даже не читая, потом прочитал несколько сообщений из Кореи, которые накопились, пока я летел в самолете. На часах было 3 утра, а дела, которые я не успел завершить в Сеуле, кажется, все еще продолжались. В мессенджере мне пришло два сообщения.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Ю Михён», «Я благополучно добралас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Я собирался было ответить, но подумал, что, наверное, нет смысла, вытащил заново корейскую сим-карту и вставил неработающую российскую. Приоткрыв окно, я выкурил сигарету, и только тогда начал осознавать, что верну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Раздумывая, куда бы мне завтра пойти, я решил, что пойду посмотреть на людей на центральную площадь, где провел весь месяц до отъезда. Состави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 на день, который вовсе не был планом, я быстро умылся и лег в кровать. По-прежнему шумела вытяжка, и из двора дома выше доносился скрип, мешая спать, но, к счастью, я уснул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Площадь за две недели моего отсутствия особо не изменилась. Только скамейка, на которой я обычно сидел, стала еще грязнее, но в целом все осталось прежним. Мимо проходила толпа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с селфи-палками, за ними следовала толпа цветасто одетых китайцев. В след движению толпы туда-сюда летала стая голубей – в целом, это был один и тот же повторяющийся пейзаж.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ая музыка и рекламное вещание по очеред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вносили разнообразие в эту монотонность. Сев на скамейку, я взял сигарету и вставил корейскую сим-карту в телефон. Пришло несколько уведомлений о сообщениях. Написал в фейсбуке подруге, работающей в местном музее, и рассказал о ситуации с сим-картой. Вскоре пришел ответ, что на телефоне просто закончились деньги, и она пополнила баланс, поэтому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ртой снова. Я подумал, что так вышло, потому что в Корее я побоялся вставить местную сим-карту и постоянно оставался на российской. В итоге Билайн прислал непонятную мне приветственную смс, и пришло несколько сообщений. Одно из них было от Ю Михён. «Я так благодарна вам за вчера. Могу я вас угостить ужином, если вы не против?» Мне не казалось, что мой поступок заслуживал так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о, возможно, это было бы веселее, чем оставаться в скучной площади, и написал, извиняясь за поздний

ответ, что в 6 вечера буду в кафе в дворике ГУМа.

С камерой на плече я сделал несколько кругов вокруг площади, купил сэндвич и снова сел на угловой скамейке. Наблюдая за голубями, подбирающими крошки, которые им кидали туристы, я тоже развернул свой сэндвич. Передо мной остановилась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и молодой мужчина – видимо, гид – коротко рассказал, что площадь названа в честь революции, и что отсюда началась депортац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озвучали слова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смерть», следующие пять минут группа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а, после чего мужчина объявил, что следующий пункт экскурсии – ГУМ, застекленное здание на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стороне улицы, и быстро удалился. Я хотел послушать его рассказ дальше и узнать, почему центральный универмаг называется ГУМ, но не хотелось ради этого специально следовать за ними. Все равно эта площадь – скорее широкий проход в сторону магазинов, поэтому кака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разница, называются они ГУМ или как-то еще. Туристы хаотично сорганизовались в самом центре площади и готовились сделать групповое фото. А издалека уже приближалась следующая толпа

корейцев в одинаковых футболках. Убирая упаковку от съеденного сэндвича в сумку, я снова услышал все те же «революция» и «депортация», а потом туристы, разбившись на небольшие группы, направились в сувенирный магазин.

От Ю Михён пришла еще одна смс. «Я пришла раньше и буду ждать в кафе. До встречи». У меня не было особых дел, но и идти раньше не слишком хотелось, поэтому я ответил: «Хорошо», – и пересел поближе к строящейся церкви, где людей было поменьше. Достал газету, которая пролежала у меня в сумке пару недель с тех пор, как мне ее дала какая-то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как раз когда я здесь сидел. В тот раз несколько пожилых человек стояли под красным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и флагами и держали транспаранты с лозунгами, которые я, конечно, не мог прочитать. Я подошел к ним поближе и увидел, что они раздают какие-то газеты. Самый молодой из них, старательно улыбаясь и жестикулируя, начал было объяснять мне, что это за газета, но засомневался, что я его понимаю, и замолчал. Аккуратная старушка в берете, также раздававшая газеты прохожим, подошла ко мне. Без особого выражения на лице она принялась меня о чем-то расспрашивать. Я не мог понять, что она говорила,

но в конце расслышал «Корея?» Я в замешательстве ответил: «Корея». Старушка, немного распрямившись, погладила меня по спине. Она протянула мне газету. Я не нашелся, что ей ответить,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вторил: «Спасибо». Старушка потихоньку ушла на прежнее место и принялась снова раздавать газеты. Теперь, спустя две недели, я достал аккуратно сложенную газету и попробовал перевести ее через распознаватель текста в Гугле. Перевод на корейский был почти бесполезен, поэтому я попробовал сменить язык на английский, и тогда что-то начало проявляться. Я поворачивал камеру так и эдак, чтобы появились знакомые слов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одно предложение наконец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WORKERS OF ALL LANDS, UNITE!» Пролетарии всех стран, объединяйтесь.

Когда я в назначенное время пришел в кафе, оно уже было заполнено корейцами, а в углу сидела,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Ю Михён. Она узнала меня первой и встал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в меня: «Вы все-таки пришли. Присаживайтесь». По правде говоря, я видел только ее силуэт на стоянке аэропорта, а в темном такси почти не разглядел ее лицо, поэтому, можно сказать, видел ее сейчас в первый раз. «Спасибо», - сказал я и еще раз взглянул на

ее лиц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помощь вчера. Мне было так страшно». Она подождала, когда я сяду, и только потом опустилась на стул, продолжая меня благодарить. Я все еще не понимал, что такого сделал, что заслужил такую, но, видимо,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этот поток благодарностей, я должен был ее принять. «Я рад, что Вы благополучно добрались. Как путешествие?» - спросил я, глядя на открытый гид по Владивостоку, лежащий перед Михён. «Весь день просидела на скамейке на набережной». Я немного удивился этому ответу и хотел было спросить, зачем было приезжать сюда, чтобы весь день сидеть на одном месте, но, поскольку сам каждый день делал то же самое, решил, что не мне задавать такие вопросы. Михён спросила, показывая на путеводитель: «Вы, наверное, голодны? Хотите поесть? Я тут прочитала, что рядом есть хороший итальянский ресторан. Как вам?» «Да, хорошо, на ваш вкус. У меня еще много дней здесь».

Когда я распрощался с Михён и вернулся, было уже за два ночи. После ужина мы пошли выпить по кружке пива, но провели в баре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и. Я умылся и лег, но из-за стра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алкоголя сон не шел. Я вспомнил про бутылку водки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которую я оставил там до отъезда в Корею. Ополоснув кружку, из которой пил утром чай, я достал бутылку (там оставалась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 заветрившийся сыр и сел за стол. Я сделал глоток холодного «Русского стандарта» и достал сигарету. Мне вспоминались слова Михён о ее отце, который умер не так давно. О том, что она родилась в Кванджу, но уехала в Тэгу работать на госслужбе. Как ее отец, риэлтор из Тэгу, умер в Кванджу. Ее покрасневшее от алкоголя лицо и отсутствие на нем всякого выражения, когда она это рассказывала, так и стояли у меня перед глазами. Я достал телефон и отправил ей смс. «Можн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завтра в прогулке к арке?» Когда мы ужинали, я спросил, не хочет ли она куда-то еще сходить, кроме набережной, на что она сказала, что приехала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е под аркой Цесаревича, и предложила составить ей компанию. Довольно скоро пришел ответ: «С радостью. Встретимся в два на площади».

То 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я смешал пиво и водку, то 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рано встал, я все еще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пьяным, когда проснулся. Я достал из холодильника выдохшуюся колу и жадно выпил, затем проверил телефон – там было сообщение от

Михён. «Я проспала и сейчас выезжаю на маяк. Возможно, немного опоздаю. Встретимся в три». Я думал, не поспать ли еще, но дождь слишком шумел, и я включил телевизор. Там был все тот же 256-й канал, который я смотрел каждую ночь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Удивительно, но этот канал 24 часа в сутки транслировал вид с камер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Я без особых мыслей смотрел на площадь: там был мужчина в синей шапк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по ней ежедневно в один и тот же час, влюбленная парочка с букетом цветов, целующаяся на скамейке. В предрассветные часы приходили уборщики, сгребаящие мусор, а также старушка, каждое утро целующая небольшой крест на площади. Поэтому, хоть я и считал это бессмысленной тратой электричества, каждый вечер, возвращаясь, включал 256-й канал и засыпал под трансляцию с площади. Сегодня был ярмарочный день. Приняв душ, я взял зонт и сел на 59-й автобус, который шел до площади. Здесь большая часть автобусов – списанные корейские. В Корее почти в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заменил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й, а то, что осталось, перепрода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Чувствуя легкие уколы совести и вдыхая выхлопные газы, через полчаса я отдал водителю 23 рубля и вышел

рядом с площадью, на Серой Лошади.

Когда мы пришли к арке Цесаревича, я спросил: «Какое желание Вы решили загадать?» Михён слегка улыбнулась, покачала головой и широкими шагами прошла под аркой. Потом, развернувшись ко мне, сказала: «Желание – слишком громкое слово. Я уже шестой год на госслужбе. Давно забыла, что это такое».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она смеялась, уголки ее рта дрожали. И сейчас было то же самое. «А на маяке ничего интересного. Вы вчера расплатились в баре, сегодня моя очередь угощать. Вы же не против?» Раз уж мы здесь, а желание может и не исполниться, я предложил: «Хотите, сфотографирую Вас?» «В детстве я любила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но теперь этого не делаю. Может, лучше я Вас?» Я отвернулся от арки и сказал: «Не стоит. Пойдемте лучше ужинать». Мы пошли в шашлычную, рекомендованную в путеводителе, но там уже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Мы думали подождать, но сотрудники сказали, что нужно было резервировать столик. Полистав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дороге, Михён, недовольно скривившись, предложила: «Может, просто пойдем пить?» – «Это будет лучше». Миновав загазованную дорогу, мы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набережную, заняли место в баре и

заказали по коктейлю, рекомендованному барменом. Моросил дождь, и, глядя на море, я сказал: «Отсюда прекрасный вид на закат, жаль, что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пасмурно». Михён коротко ответила: «То, о чем сожалеешь, и помнится дольше.»

К закату мы уже оба были пьяны. Я решился заговорить об отце Михён, потому что он не шел у меня из головы со вчерашнего вечера. «Так ресторана, который держал Ваш отец в Кванджу, наверное, уже нет?»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же давно было. Я не помню точно, но уже в 1988-м, в год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мы жили в Сеуле. А работу он бросил намного раньше. В год, когда я родилась, как раз случилось восстание в Кванджу, и отец с тех пор пил каждый день. Именно с того дня, как оно закончилось. Тогда мне было всего два месяца, и бабушка, видимо, всячески отговаривала ег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емонстрациях. Говорила, если уж хочешь идти, то ее сначала убей. Наверное, чувство вины его мучало? Но все равно какое-то время он еще работал. С тех пор, как мама оставила меня на попечение бабушки, та не рассказывала много об отце». Михён, всматривавшаяс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в черноту моря, подперев подбородок рукой, вдруг начала листать меню, затем закрыла его и

предложила: «Может, пойдём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ообще это рядом с аркой, где мы недавно были, сможете опять пройти это расстояние?» Когда я был здесь два года назад, я ходил к нему и был несколько разочарован, да и не слишком хотелось возвращаться опять туда, откуда недавно пришли, поэтому, взвесив все в уме, переспросил. «Разве Россия не удивительна? Как им пришло в голову создать что-то вечное? Говорят, за 70 лет он ни разу не потухал. Что же случится, если он все-таки потухнет?» У нее опять задрожали уголки губ.

Когда мы встали из-за стола, я открыл приложение такси на смартфоне. Оно показало, что вчера я вызвал машину в 3:25, значит, дома был около 4-х и спал всего три часа, но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на удивление неплохо. Даже будучи пьяным, дома я снова включил телевизор. По 256-му каналу показывали площадь, затянутую туманом.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оставался недопитый яблочный сок. Налив его в стакан, я достал сигарету и сел за стол, достал телефон и открыл картинку-скрин новостей, которую прислала мне Михён. В тексте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ее отец погиб в ДТП. В этот день он направлялся на встречу клуба гор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ванджу, и водитель междугороднего автобуса, в котором

он ехал, уснул за рулем. Новость сопровождала фотография наполовину раскоряченного автобуса, лежащего на склоне. «Я уже потом узнала, что отец, посещая этот клуб, прочитал много книг по общественному активизму. Мама не знала, что это за книги, но думала, что лучше пусть читает, чем пьет ночами. Говорит, что, если спросить у него, что читает, он отвечал, что изучает мир. Когда мы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открыли ящик письменного стола, то обнаружили множество активистских книг». Мне вспомнилось, как Михён это рассказывала, вертя в руках пивную кружку. Я догадывался, что за заголовки были у тех книг, но решил не уточнять. Пока я перебирал в памяти детали нашего разговора, у меня начала болеть голова. Я налил в электрический чайник воды и открыл помятую упаковку быстрозавариваемой лапши, которую привез из Сеула. Пока курил, вода закипела, я залил лапшу. Сейчас мне нужна была даже не она, а острый бульон.

Последнее, что я помню из нашего разговора, что Михён произнесла имя Сталина. Захмелевший, 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ереспросил: «Сталин?», а Михён со свойственным ей отсутствием выражения на лице поставила кружку на стол и понизила голос.

«У бабушки был старший брат. Когда она была еще маленькой, он отправился на Камчатку на заработки и, видимо, в ноябре того же года сел в последний поезд, депортировавший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абушка всегда причитала, что это случилось из-за нее. И пьяный отец возмущался, что это не ее вина, а Сталина. Мама больше всего не любила эти разговоры». После этого она что-то говорила о том, что любит выпить, но не любит корпоративную культуру совместных ужинов, поэтому не пьет уже давно; что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и что лучше ей перейти в другой отдел, и жаловалась на жизнь, после чего мы разошлись по домам – у меня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неяс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Но я точно запомнил, что через три месяца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бабушка тоже умерла, и что до смерти отца она была волонтером в детском саду для дете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ванджу, в районе Вольгок, где еженедельно готовила еду. Пока Михён это рассказывала, на монитор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внутри бара, крутили концерт Дэвида Боуи у Берлинской стены.

Отпив бульона, я вылил остатки вместе с лапшой в унитаз. Боль не утихала, поэтому я

ворочался в кровати и наконец решил выпить обезболивающее, после чего вновь сел за работу. Немного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 фотографии, отснятые на площади, а уже к обеду вызвал такси туда. Это был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Михё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на сказала, что ее самолет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тправляется ночью, в 3:40. Узнав это, я спяну предложил оставить вещи в гостинице, а до часу ночи погулять вместе. Пока я был в такси, от нее пришло еще одно сообщение: «Я вышла пораньше и уже на площади. Можете не торопиться. Мы же в России». Это был не очень понятный аргумент, но он меня легко убедил. Пообедав солянкой и шашлыком в безвкусно обставленном ресторан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мы сидели на площади и наблюдали за туристами. Я пил милкис, а Михён – газированную воду. «А почему вы бросили преподава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там же можно было хорошо заработать? И почему пошли именно на госслужбу?» Я выбросил пустую банку из-под милкиса в мусорный бак. «Для преподава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тоже есть свое время. Это хорошее занятие, когда ты молода и красива. С возрастом уже не получается. Я раньше подрабатывала учителем английского в старшей школе. Однажды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звал к

себе и сообщил, что я очень подхожу школе, и что он может устроить мен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Но для этого, сказал он, нужно пожертвовать школе сто миллионов вон. А мне не настолько этого хотелось. К тому же, отец очень сильно хотел, чтобы я стала госслужащим». С неба стали срываться дождевые капли. Вчера Михён говорила, что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хочет побывать на Орлиной сопке. «Дождь начался. Не стоит ли поторопиться на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 сказал я, поднимаясь со скамейки. «Такой туман, хоть что-то будет видно?» – спросила Михён, тоже вставая. «Давайте проверим». Вызвав такси МАХИМ в приложении, мы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сопку. По дороге дождь все усиливался, и на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нас ожидал настоящий ливень. «Думаете, выходить из такси сейчас – правда хорошая идея? Потом другую машину будет непросто поймать», – спросила Михён, глядя на меня. «Это конечный пункт ваш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Пойдемте», – сказал я, доставая из кошелька двести рублей для таксиста. Я достал из сумки маленький зонт и вышел первым. Михён нырнула под зонт и закрыла дверь такси. На площадке все было затянуто туманом, и только верхушки Золотого моста проглядывали сквозь него. Мы переглянулись и засмеялись. Такси еще

не уехало. Я открыл дверь, попросил водителя немного подождать и, стоя под открытым дождем, спросил Михён: «Раз уж мы здесь, сделайте хотя бы снимок на память». Улыбнувшись, она направила камеру телефона на мост 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а его. «Наверное, кроме меня, никто не делал таких снимков на этой сопке?» На фото, которое она мне показала, не было видно ничего, кроме белого тумана. «Раз я такой снимок не делал, то, видимо, да».

«Отец много пил, а потом стал ходить в этот клуб горного туризма, и все вроде бы наладилось. В 88-м году он перевез всю семью в Сеул и обзавелся маленьким ресторанчиком. Ресторан располагался в переулках района Чонно, а название его было «Мидобан», он разве не красивое? Кажется, дела хорошо шли. Поэтому он каждый месяц ездил в Кванджу. После этих поездок у него было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Михён за ужином внезапно опять заговорила об отце. «Я иногда думала, что, наверное, это не самая плохая смерть – по дороге к тем, кого ты так любишь. У меня не так много воспоминаний об отце. В детстве мы жили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а в Сеуле он был так занят, что возвращался, когда я уже спала. Когда он умер, я плакала, но в душе ничего не

чувствовала, это было странно. Но вспоминаю, что, когда отец выпивал, все говорил, что хочет побывать в России. А тут мое начальство как раз сказала побыстр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оставшиеся дни отпуска». Когда мы уже доедали, я спросил: «А почему отец внезапно отправился в Тэгу?» Михён склонила голову и усмехнулась: «Мама говорит, у него появилась страсть к заработкам. В Сеуле он трудился, не покладая рук, однако смог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лишь маленький дом, а потом цены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возросли. Мама говорит, что впервые видела отца таким радостным. Продав так несколько домов, он смог оплатить мой университет. Тогда он ночами зачитывался книгами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Когда в 2007-м поменялся президент, отец сказал, что нужно отправляться за деньгами в провинцию Кёнсан. Он продал дом в Сеуле и бездумно отправился в Тэгу, где купил сразу два новых. Я тогда тоже бросила работу в школе и перебралась к нему. Он устроился в риэлто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и открыл свою фирму. Тогда же начал делать вклады». Дождь заканчивался, и над морем возникла алая полоска заката. «Ого, сегодня море такое красивое. Теперь вы все видели». «Похоже на то. Думаю, я вряд ли сюда еще вернусь».

«Господин городской одиночка, разве можно так распивать алкоголь на площади революции?» – спросила Михён, отхлебнув пиво. «А разве площади не для этого созданы? Вам, кстати, не странно, что здесь так много бездомных?» – переспросил я, поглядывая на одного из них на соседней лавочке.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везде одинаковая, что здесь такого», – ответила Михён, открывая новую банку. Я продолжал: «Что бы сказал ваш отец, увидев эту площадь?» Михён, сделав большой глоток, ответила: «Наверное, продолжал бы те же самые разговоры, что и всегда. Жуть. Про то, что американцы уничтожили Кванджу, про перес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азвалился по вине Сталина, что революция в России была по-настоящему великой, и так далее, и так далее. И еще он купил бы много водки для своих друзей по клубу. Еще бы заговорил про цены на землю в России». Поставив банку рядом, она продолжила: «Но я вот думаю, что было бы, если бы бабушка побывала в России. Когда я жила у нее, она часто плакала в одиночку. Но говорят, когда она волонтерствовала в той школе, часто сердилась на детей, приговаривая, что им повезло и что они должны жить по уму. Видимо, ворчать –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Сказав это тихим голосом, она замолчала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Я посмотрел на нее и спросил: «Ну как, удалось привести мысли в порядок?» Михён, немного откинувшись назад, посмотрела в черное небо. «Да я просто погулять приехала». Так мы постепенно выпили все, что купили в супермаркете. Было уже полночь. «Посмотрите туда и помашите рукой. Кто-то сейчас смотрит на нас по телевизору», – сказал я, указывая на крышу дома напротив. «А, это там камера установлена?» Михён энергично помахала рукой в сторону большого магазина через дорогу. «Не кажется ли вам эта площадь немного несчастной?» – прекратив махать, спросила она. «На ней такой тяжелый гру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она молчала, оглядывая площадь. «Увидимся ли мы еще когда-нибудь?» – спросила она затем, накидывая ремень сумки на плечо. «Сложно сказать», – ответил я. «Когда будете тут сидеть, махайте иногда в камеру. Как знать, может, я буду смотреть», – Михён, смеясь, протянула мне руку. После немного затянувшегося рукопожатия я спросил: «Не боитесь одна ехать в аэропорт?» Поправляя лямки рюкзака за спиной, Михён ответила: «Ну вы же говорите, здесь не так уж и опасно». Уголки ее губ дрожали.

글: 홍진훤
번역: 김아델
수정: 라다 스몰란스카야

Текст: Хон Джинхвон
Перевод: Адель Ким
Редактура: Рада Смолянская

© 홍진훤 2018

